

2016년 12월 15일, 표선면 성읍1리 성읍1리노인회관, 송정희 조사.  
조인홍(남, 1934년생, 표선면 성읍1리)

**[제보자]** 벤할망 잇어낫주. 안 혀파? 그 방구게메 옆에 살아난? 그 굴렁짓 할망? 굴렁짓 할망. 어. 그 벤칩이 시집 간 할망. 벤칩이 할망. 게난 그 할망이 하도 물 질레 가는디 소가 돌아나간 오름에서

“그 쉼 훈펜이네 삽서. 그 쉼 찢립니다. 찢립니다.”

막 우에서 웨는디, 뭇 쉼냐믄 산에서 산소가 느려와. 산소 심영 석전에 성읍리 그 석전이라고 정의 행교에 제 지낼라고 흥지가 모여전, 그 쉼 심자고 허는디 쉼 가 기냥 막 내려완. 알려레 막 터전 돈는디 할망은 물 전 가단 어떤 일이 잇인고 허민

“저 할망 옆더레 들어갑서. 쉼 찢립니다. 찢립니다.”

허난, 영 옆더레 샷단 쉼 폭허게시리 쉼 데가리 반 부쩍 폭 심으난 쉼가 앵 행

“요 쉼 와 제기 심영 가.”

제기 심영 가난. 게난 원 할망 뵈. 아이고 이런 할망 잇이나 할망을 그냥 하늘 모시듯이 모셔낫젠 허여.

- 핵심어 : 벤할망, 힘, 소, 성읍리, 석전, 정의 행교